

SKT, CES 2022에서 넷-제로 달성 위한

그린 ICT 기술 선보인다

**- ▲AI 반도체 ▲싱글랜 ▲메타버스 등 전력 사용량과 탄소 발생 줄이는 ICT 기술 전시**

|  |
| --- |
| **엠바고 : 배포 즉시 사용 부탁드립니다.** |

**[2022. 1. 5] – 사진보도자료 -**

SK텔레콤(대표이사 사장 유영상, www.sktelecom.com)이 5일(현지시각)부터 8일까지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·가전 전시회 'CES 2022'에서 넷-제로(Net-zero) 시대의 그린 ICT 기술을 선보인다.

SKT는 SK주식회사, SK이노베이션, SK하이닉스, SKE&S, SK에코플랜트 등과 함께 '2030 SK 넷-제로(Net-Zero) 약속 선언'을 주제로 센트럴 홀(Central hall)에 920㎡ 규모의 공동 전시 부스를 꾸려 SKT의 그린 ICT 기술을 소개한다.

SKT는 ▲AI 반도체 ‘사피온(SAPEON)’ ▲’싱글랜’ 기술 등 기존 대비 전력 사용량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을 전시한다.

또한 ▲메타버스 플랫폼 ‘이프랜드(ifland)’ ▲다회용 컵 순환 프로그램 ‘해피 해빗’ ▲최적 경로 내비게이션 ‘티맵’ 등 일상 속에서 탄소 발생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ICT 서비스를 소개한다.

|  |
| --- |
| ※ 사진설명SK텔레콤이 5일(현지 기준) 개막한 세계 최대 IT·가전 전시회 ‘CES 2022’에서 넷-제로(Net-zero) 시대의 그린 ICT 기술을 선보인다.사진 1: SK텔레콤이 SK 관계사와 함께 마련한 공동 전시 부스에서 모델들이 AI 반도체 '사피온(SAPEON)'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사진 2: SK텔레콤이 SK 관계사와 함께 마련한 공동 전시 부스에서 모델들이 메타버스 플랫폼 '이프랜드(ifland)'를 체험하고 있는 모습사진 3: SK텔레콤이 SK 관계사와 함께 마련한 공동 전시 부스에서 다회용 컵 '해피 해빗'을 안내하고 있는 모습사진 4: SK텔레콤이 SK 관계사와 함께 마련한 공동 전시 부스에서 최적 경로 내비게이션 '티맵'을 체험하고 있는 모습사진 5: SK텔레콤이 SK 관계사와 함께 마련한 공동 전시 부스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 |

**▶ 관련문의 :** **(미국 현지)SKT PR실 전략PR팀 윤태구 매니저(010-9888-0818)**

 **(한국) SKT PR실 전략PR팀 이교혁 매니저(02-6100-3870)**

**<끝>**